

영어교육과 대학

文 熙 卿

(高麗大 英語英文學科)

우리나라 대학생들이나 대학 졸업생들의 평균적인 영어실력은 그리 높다고 평가할 수 없다. 소위 일류대학 출신들 중에서도 간단한 영어문장 하나 제대로 정확히 쓰지 못하고 심지어 외국인을 만나면 빙어리가 되는 사람들이 상당수에 달한다. 기본적인 독해력은 대부분 어느 정도나마 갖췄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말하고 듣고 쓰는 능력을 제대로 갖춘 사람은 매우 드물다. 더욱이 겉썩은 발음으로 비교적 유창한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는 더욱 더 적은 것이 현실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학교에서 시작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의 6년간과 이어 대학에서도 영어공부를 계속했다는 자부심을 갖기에는 매우 부족한 영어실력을 갖고 있으며,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의 영어교육은 성공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교육제도와 사회가 영어교육에 대한 관심이 적거나 혹은 그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그 반대이다. 영어는 중·고등학교 교육에서 국어 및 수학과 함께 소위 필수과목으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학에서도 교양필수 과목으로 중요하게 취급된다. 고려대의 경우 1학년 학생들의 영어시간은 주당 5시간에 이른다. 사회에서도 영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매우 커서 영어실력은 흔히 한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의 하나로 사용된다. 그러한 까닭에 대학 문을 나서는 학생들에게 영어실력은 중요한 자산이다. 대부분의 회사나 기관들이 신입사원을 선발할 때 영어시험을 치르는 까닭에 영어실력은 취직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며, 회사 내에서도 남보다 뛰어난 영어실력을 가진 사람은 그만큼 더 인정을 받는 것이 현실이다.

오늘날 영어는 명실공히 국제어로서의 위치를 확고하게 자리잡았다. 국경과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날로 더욱 좁아지고 상호의존적이 되어가는 세계에서 국제어로 통하는 영어는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회인이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기능이 된 것이다. 그러한 까닭에 영어를 배우는 데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은 매우 높다. 자녀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려는 부모들의 열기도 대단해서 국민학생들 중 상당수가 영어과외를 받는다고 하며, 심지어 유치원생에게도 영어를 가르친다는 소리가 들릴 지경이다. 그러나 이렇듯 많은 사회적 관심과 교육시간의 투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어교육이 성공을 거두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우리나라의 영어교육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점

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우리나라 교육이 지닌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시험 위주의 교육이라는 점일 것이며, 특히 중·고등학교의 교육이 독자적인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데 주력하여 입시준비 학원화한 현상은 매우 우려할 만한 일이다. 영어도 다른 교과목과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대학입시에 치우친 우리 교육이 전반적으로 지닌 문제점을 안고 있다. 試驗을 위한 영어교육, 그것도 더구나 객관식 문제가 주를 이루는 입학시험을 위한 영어교육은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모두 얼마나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가에만 관심을 갖고 거기에 교육의 역점을 둔다. 따라서 실제로 구사할 수 있는 영어능력을 길러 활용하는 일은 교육에서 도외시되며, 결과적으로 얻어지는 것은 활용할 수 없는 죽은 언어나 마찬가지로 된다. 시험 위주의 영어교육으로 인한 결과로서 심지어는 TOEFL과 같은 시험에서도 우리나라 학생들은 흔히 성적은 좋은 데 비해 실제 영어실력은 형편없다는 소리를 자주 듣는다. 시험점수는 높지만 알아듣지도, 말하지도, 쓰지도 못하는 영어는 우리 영어교육의 모순된 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영어교육이 지닌 또다른 문제점은 어학교육, 특히 외국어교육의 특수성을 무시한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점일 것이다. 외국어 언어를 배우는 것은 곧 하나의 새로운 의사소통 기능을 배우는 것이다. 이러한 기능은 質적 위주의 교육에서 획득될 수 있다. 아무리 많은 단어와 문법을 알고 있어도 적절한 상황에서 자신의 의사를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없다면 그 지식은 아무런 소용도 없는 것이다. 어학교육에서는 읽고 듣고 말하고 쓰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처럼 단어나 암기하고, 해석이나 하고, 문법을 배우는 데 그친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언어를 배우다고 할 수 없다.

듣고 말하고 쓰고 읽는 언어교육은 대단위 교실에서는 이루어지기 힘들다. 회화나 작문은 특히 집중적인 연습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작은 규모의 교실과 개별적인 지도하에서만 능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즉, 외국어교육은 선생과 학생의 비율이 낮을수록 좋기 때문에 매우 값비싼 교육이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교육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가 뒤따라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인문교육이 과학교육이나 예체능교육에 비해 돈이 안 드는 것이라는 일반적 통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음악이나 미술은 개인지도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서도 외국어교육은 대단위 교실에서 학생들이 수동적인 자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으로도 가능하다고 믿는 것이 우리 교육의 현실인 것이다. 외국어 언어를 배우는 데 필요한 특수한 여건을 무시한 채 시행되는 영어교육의 효율성이 낮은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

대학에서의 영어교육도 이러한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교생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교양영어 교육은 대부분의 대학에서 독해 중심으로 대단위 강의실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듣기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설되는 어학 실습강의는 학생들 사이에서는 가장 줄리는 시간이라는 평까지 듣는다. 또한 수천 명의 학생을 소수의 교수가 담당할 수 없는 까닭에 강의가 주로 시간강사들에 의존하게 되며, 박사과정 대학원생들이 주를 이루는 젊은 강사들이 많은 경력을 쌓아온 고등학교 교사들에 비해 서투른 강의를 한다는 것도 항상 지적되는 커다란 문제점이다. 대학 역시 외국어교육이 필요로 하는 특수한 여건을 무시하고, 가장 쉽고 돈이 안 드는 방법으로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작문과 회화, 그리고 각 전공분야에 필요한 전문영어 등 알맹이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자 한다면 그 비용은 참으로 엄청날 것이며, 현재 대학의 재정상태로는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자격있는 교사의 확보에도 큰 어려움이 뒤따른다. 외국인으로서 영어를 외국어로 가르치는 데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초빙해오는 것은 재정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절차 또한 복잡하기 이를 데 없다. 내국인 중에서 작문과 회화를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의 수 역시 배

우 제한되어 있다. 결국 대학에서의 영어교육은 이러한 어둠들토 인하여 형식적인 것에 그치고 말며, 중·고등학교의 입시위주 영어교육이 가진 취약점을 보충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한편 대학이 과연 영어교육에 대해 어떠한 책임을 얼마나 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학생들은 흔히 교양영어 이외에 영문과 학생이 아닌 일반 학생들을 위해 개설되는 영어 강좌가 극히 소수이기 때문에 영어를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 없다고 불평을 하곤 한다. 대학은 물론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길러내는 곳이다. 하지만 대학은 어디까지나 학문을 연구하는 곳이다. 결코 어떤 특수한 기능을 길러주는 곳이 아니라는 뜻이다. 물론 지금의 영어교육보다 더 효율적인 영어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어느 한계 이상의 집중적인 외국어 훈련을 대학에서 실시해주기 바라는 학생들은 대학과 학원을 혼동하는 것 같다.

이러한 혼동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은 영문과에 대한 사회의 일반적인 인식이다. 대학의 영문과는 다른 전공분야 학과와 마찬가지로 학문을 연구하는 곳이며, 이 학문은 영문학과 영어학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영문과가 마치 영어를 배우는 곳인 것처럼 잘못 인식되어 있다. 대학입시 면접시험에서 학생들에게 왜 영문과를 지원하는가 물으면 열 명 중 아홉은 영어를 배우고 싶기 때문이라고 대답한다. 그러나 실제로 영문과의 교과과정을 살펴보면 영어강좌보다는 영문학과 영어학의 과목이 훨씬 더 많다. 학과의 교수들 또한 영문학자이거나 영어학자들이지 영어를 외국어로서 가르치는 데 자격증을 갖춘 사람들이 아니다. 따라서 영어만 배우고 싶은 학생들에게는 시를 읽고, 고전 작품을 읽고, 또 영어학의 어려운 이론 등을 배우는 일 등은 별로 큰 관심을 끌지 못한다. 이런 학생들은 나중에 유학을 가서도 전공과목을 바꾸기 일쑤다.

이런 영문과의 성격에 대한 혼동은 대학 내에서 차지하는 영문과의 위상에서도 나타난다. 많은 대학에서 영문과의 학생 정원은 국문과보다도 많으며, 따라서 교수의 수나 강사의 수 또한 많다. 입시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키트라인 또한 높아서 우수한 학생들이 영문과로 많이 몰리는 현상을 반영한다. 이는 우리 사회가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인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그래서인지 영문과 졸업생들은 타과 출신에 비해 취직도 잘되는 편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게 생각하더라도 미국이나 영국처럼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나라의 대학에서 영문과가 그 나라의 국문과보다 비대하다는 사실은 무엇인가 거꾸로 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대학의 영문학 및 영어학 교육과 영어교육을 혼동한 데에서 기인한 결과이다.

우리 사회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많은 영문학자나 영어학자가 아니라 영어를 잘 구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며, 따라서 영어교육을 잘 실시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영어교사들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의 영어실력 향상을 위해서는 영문과보다는 영어교육과가 더 큰 비중을 가져야 할 것이다. 중·고등학교에서 영어교육을 담당할 교사를 길러내는 영어교육과의 임무는 막중하다. 더구나 6년 동안 중·고등학교에서 균형없이 배워 온 영어를 대학 강의에서 바로잡는 일은 매우 힘들고 한계가 있는 까닭에 영어실력의 향상을 위해서는 중·고등학교의 영어교육이 바르게 이루어져야만 한다. 따라서 대학이 우리나라 영어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질 높은 英語教師의 養成에 있으며, 이것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매우 시급하고 또 절실한 과제라 생각된다.

영어는 더 이상 영문과 학생의 특기가 아니다. 어떠한 과목을 전공하든지 영어는 이제 국제화 시대로 향하는 사회에서 지식인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기능이 되었다. 따라서 시험을 위한 영어, 말하지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식의 영어교육이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중·고등학교 교과과 대학입시 제도의 개선과 병행하여 좀더 전문적인 외국어교육과 수준 높은 교사의 양성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投資가 있어야 할 것이다. 아니면 우리의 영어교육은 국제사회에 발맞추어 나가기 어려울 것이다. ■